

中央藥大 同門會報

2002. 가을호 (제10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중앙대학교 개교 84주년 제 32회 모교의 날

약학대학동문회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인 쇄 : 2002년 10월 30일
 발 행 : 2002년 10월 31일
 발행인 : 유 영 후
 편집인 : 황 공 용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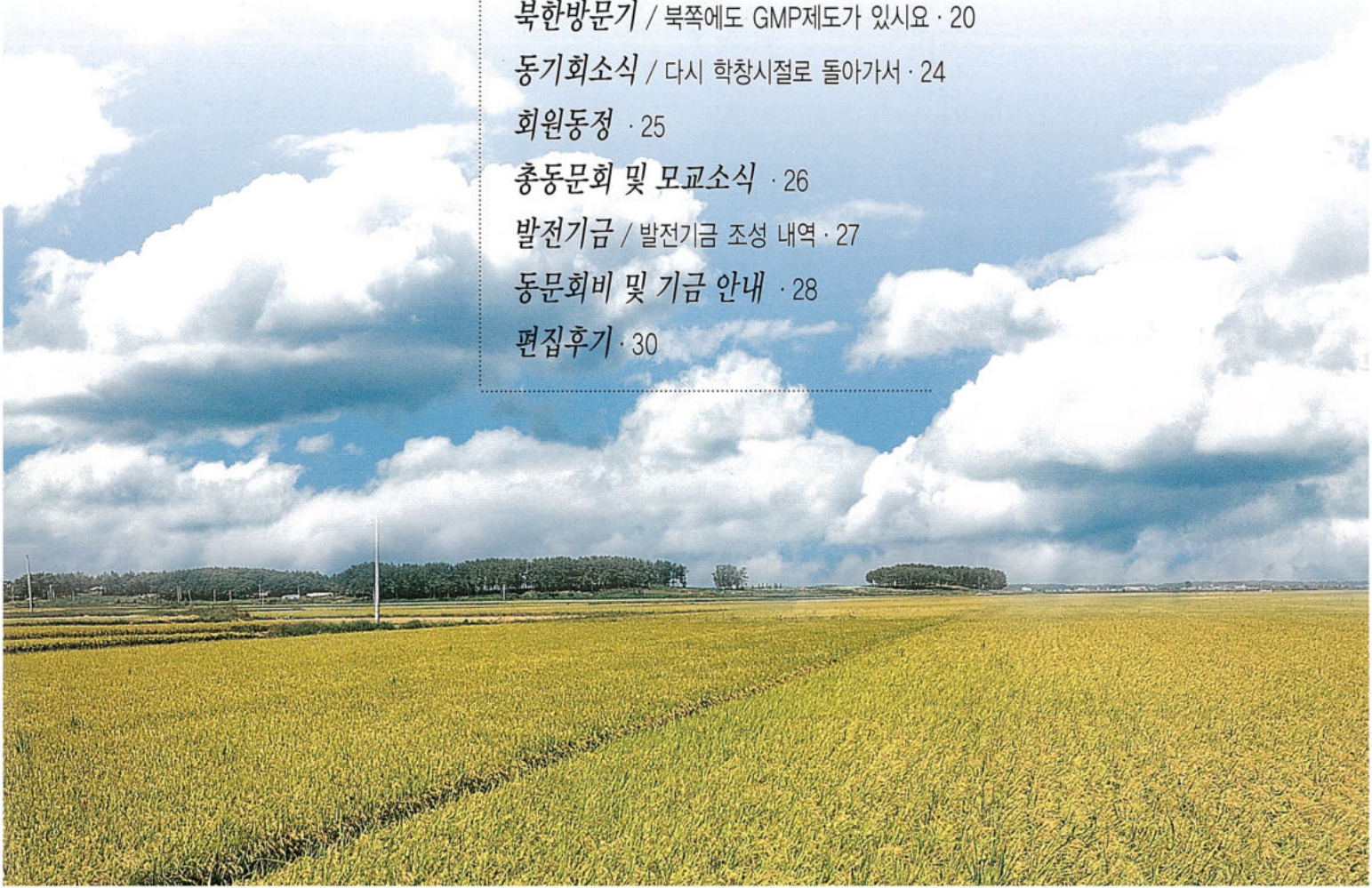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
 (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전 화 : 565-1700
 팩 스 :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

기획, 인쇄 : 유천문화사
 전 화 : (02)2263-1901(대)
 팩 스 : (02) 2263-1905
 E-mail: YC1905@chollian.net

CONTENTS

CONTENTS

- 시론 / 약학대학 발전에 부처... 3
- 프로필 / 동문제약회사 CEO · 4
- 동문회소식 / 회장단회의 · 5
 - 제32회 모교의 날 기념 체육대회 · 6
 - Home-Coming Day · 12
- 여동문회소식 / 풍물소리따라 후배들 찾아 · 14
- 동기별소식/14회 / 세월의 발자취 14회 동기회 · 15
- 특별기고 / 停(定)年을 맞이하여 · 16
- 약국도움이야기 / Azole계 항진균제의 복약지도 · 18
- 만평 / 그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지... · 19
- 북한방문기 / 북쪽에도 GMP제도가 있시오 · 20
- 동기회소식 /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 24
- 회원동정 · 25
- 총동문회 및 모교소식 · 26
- 발전기금 / 발전기금 조성 내역 · 27
- 동문회비 및 기금 안내 · 28
- 편집후기 · 30



약학대학 발전 에 부쳐...



최영욱
(24회, 모교학장)

전통의 명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제 내년이면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전의 활시위를 당겨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지난 반세기를 반추하고 우리의 발자취를 담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0년사'를 발간함은 물론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비롯하여 우리 동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을 가지면서 이를 계기로 초일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약학대학 발전기금조성 사업이 드디어 광파례를 올렸다. 동끼리 또는 동문 지부끼리, 언제 어디서든 동문 여럿이 모이면 요즈음에는 여지없이 등장하는 메뉴가 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라는 캣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기치를 올린 약학대학 발전기금조성 사업! 이것은 우리의 염원인 약학관 신축을 비롯하여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약학대학을 세계 속의 일류대학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초석을 쌓는 일이라고 자부한다.

발전기금조성 플랜의 큰 줄기는 무엇보다 약학관 신축이다. '중앙대학교 80년사'를 보면, 파이퍼홀은 1956년 4월 20일 완공, 5월 18일에 낙성식을 거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유구한 반세기의 역사에 반하여, 어느덧 우리 대학은 경쟁상대인 다른 약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내년에 우리와 같이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대학들과 비교해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일말의 자존심도 내세우기 어렵게 되어 있다. 속명여대, 부산대, 성균관대, 조선대... 모든 대학이 최근 10년 내에 건물을 새로 짓고 연구시설을 강화하였다. 물론 우리도 지난 97년 약학계열 평가를 준비하면서 거금(?)을 투자하여 40여 성상의 묶은 때를 벗기긴 했으나, 아직도 낡고 허름한 모습을 털어버리기엔 역부족이다. 참으로 '낡은 집 뜯어고치느니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다'는 격언을 새삼 음미하게 된다.

이 열악한 교육 및 연구환경을 보며 현직 학장으로서가 아니라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이제는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 벼랑 위에 선 느낌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더 이상 지체해야 할 명분도 없다. 발벗고 나서야 한다. 팔을 걷어 부치고 모두가 뛰어들어 한 뜻으로 밀고 끌어야 한다. 한 발치 뒤로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있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다. 기필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손으로 모교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 우리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된 모습으로 모교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제야말로 각자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에 모교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새기면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한 동지 사업인 '약학대학 발전기금조성'에 동참하여 온 동문 모두가 하나된 힘을 보일 때가 된 것이다. 이것은 단기간의 일과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전 동문과 교수, 재학생이 하나가 되어 내 손으로 벽돌 한 장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모든 정성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그 때에 비로소 밝고 희망찬 미래가 우리의 앞으로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다소 어색하긴 하나, 이 지면을 빌어 우리 동문 모두에게 진심으로 총정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거친 세파에 휩쓸리며 각자의 일선에서 바쁘게 활동하다 보면 시간을 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막상 모교로 눈을 돌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건만, 이런저런 행사 때마다 모교로 발걸음을 돌려주는 열성과 동문들을 비롯하여 우편 안내문을 받아보고 자진해서 발전기금을 후원해 주는 숭선수범형 동문, 학장에게 힘내라고 격려의 전화까지 해 주는 원근각처의 동문들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런 동문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동문제약회사 CEO



김 용 옥 (3회)
건일제약(주) 대표이사



한 만 우 (3회)
한국신약 회장



윤 원 영 (5회)
일동제약(주) 회장



김 명 섭 (5회)
구주제약(주) 대표이사



유 정 사 (10회)
구주제약(주) 사장



김 주 원 (5회)
한영제약 회장



신 완 균 (7회)
한영제약 대표이사



임 성 기 (6회)
한미약품 회장



이 백 천 (8회)
(주)바이넥스 대표이사

Profile

MEMBER



조 의 환 (8회)
삼진제약(주) 부회장



이 성 우 (12회)
삼진제약(주) 사장



박 호 일 (10회)
한인제약 부회장



정 도 언 (14회)
일양약품 회장



지 태 현 (20회)
한국세로노(주) 대표이사



한 만 영 (22회)
한울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정 수 (26회)
하이텍팜 대표이사



Profile



회장단 회의

〈일 시〉 8월 24일 오후 6시 동문회관

〈토의사항〉

1. 홈커밍데이 개최의 건(체육대회)
2. 이사회비 및 일반회비 납부현황
3. 약학대학발전기금 조성현황
4. 기타 토의사항

※ 강옥희 회장 약학대학발전기금 5백만원 전달



병원약사위원회



〈일 시〉 9월 27일 오후 6시 동문회관

〈토의사항〉

1.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발전위원회
 - 발전기금 협조 부탁
 - 흑중희 회장, 총무 위원으로 위촉
 - 약학대학발전기금으로 염윤기(12회), 윤창현(13회) 동문 각 3백만원씩 전달
2. 기타 토의사항
 - 중소병원의 어려움 호소
 - 강원 및 영동지역 수해현장 방문 예정(약국 및 병원약사회)

여동문 회의



〈일 시〉 9월 4일 12시 동문회관

〈토의사항〉

1. 체육대회 준비사항 확인
2. 2002 서울 FAFA 대회등록 안내 및 참가독려의 건
3. 기타 토의사항

〈특 강〉 문옥자 감사님(경락강의)



제32회 모교의 날 기념 체육대회



수원·안양지부 공동 우승,
인천지부 3위의 영광을!

비가 올 것이라는 전날 일기예보가 빗나가도 좋은 날만 새벽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일반 회원들 역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체육대회 준비를 진행해 온 회장단 사이에 심상찮은 통화량이 폭증하면서, 약간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예전보다 이른 시간에 운동장에 얼굴들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유영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을 위시하여 모교 보직교수들, 행정실을 필두로 행사를 지원하러 온 재학생들이 속속 모여 들면서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들이 팽팽한 긴장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잔치마당에 비가 오는 것쯤이야' 어떠랴하는 여유로움이 느껴졌다고 할까.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이기 시작했다. '청룡이 승천하는데 천둥번개가 없을소냐'는 어느 임원의 지적이 맑은 가을 하늘만큼이나 분위기를 고양시켰다. 비재 뒤의 깨끗함, 동문들의 정겨운 얼굴을 1년만에 다시 보게 되었다는 기쁨의 다른 표현이 아니던가.

지난 10월 13일 모교 대운동장의 공사관계로 부속 중학교 대운동장에서 6년의 공백을 딛고 작년에 부활된 체육대회가 의미있게 개최되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약업환경은 마음 편할 날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럴수록 선후배가 격의 없이 만나 서로 격려해 주고 보듬어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이 더 큰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웅덩이처럼 운동장 한가운데 고인 물을 양동이로 퍼 나르고 비로 쓸어내면서도 불평이 있을 수 없다. 강서지부와 안양지부는 개회식 훨씬 이전부터 준비를 하는 열의를 보여주었고, 본부에서 간식으로 준비한 떡과 음료를 들면서 연신 안부 물기에 열중하는 모습들이 정겨웠다.





10시 30분 유영후 회장(7회)의 인사를 필두로 서국진 총무(13회)의 사회와 윤대봉 총무(15회)의 진행으로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날씨 걱정을 많이 했으나 쾌청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 동문회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는 덕담으로 인사를 시작한 유회장은 각 지역별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체육대회가 소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모처럼 가진 만남의 장에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빈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보직교수의 소개와 함께 모교 최영욱 학장은 현안 설명에 이어 중앙대학교의 새로운 UI(University Identity) 선포식의 의미를 강조하고, 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교 중흥의 발판이 될 발전기금 모금에 전 동문들이 흔쾌히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모교 교수들로 구성된 단일팀을 포함 총 10개팀 20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조별 추첨에 이어 시작된 경기에서 작년에 이어 안산지부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 미리 진행된 골프 시합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기선을 제압한 안양지부와 수원지부가 치열한 접전 끝에 공동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여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우승상금 50만원과 준우승상금 30만원을 더해 사이좋게 40만원씩을 공동우승 상금으로 전달했으며(그러나 선물은 공평하게 섞어서 나눌 수 없는 관계로 피튀기는 제비뽑기가 끝까지 이어졌다), 우승기도 6개월씩 공평하게 보관하기로 해 동문들의 폭소와 함께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수원지부로 참여한 1회 흥흥만 동문이 모든 경기를 뛰어다니며 펼친 활력 넘치는 1인 응원이 우승의 밑거름이 되었다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3위를 차지한 인천지부에는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고, 안산지부는 우승의 영예에 못지않은 최다 인원(27명)의 참가로 평소의 단합을 과시하며 다참가상의 영광을, 25명이 참가한 수원지부가 아차상을, 그리고 24명이 참가한 강서·양천지부가 애석상을 차지했다.

김종갑 명예교수가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지켜주



▶ 3위의 인천지부



▲ 교수팀, 수원팀 승부(축구)



▲ 수원·안양지부 공동우승 후 기념 촬영





날씨 걱정을 많이 했으나 쾌청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 동문회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는
덕담으로 인사를 시작한 유회장은 각 지역별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체육대회가
소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모처럼 가진 만남의 장에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빈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섰고, 김일혁, 손동헌(1회) 명예교수의 건강한 얼굴
을 뵈는 기쁨이 있었으며, 최영욱 학장(24회)을 위시
한 황완균(26회), 천영진 학부장, 임철부(6회), 손의
동(22회), 심상수(26회)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손수
땅을 고르고 미비한 사항을 체크하며 굳은 일을 마다
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고, 원로이신 홍흥만(1회 동기회장) 선배
를 비롯 김기홍(1회), 오세형(3회), 최종목(3회) 고문
이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며 변함없는 후배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유운자(7회, 박명수 총장 부
인) 동문이 멀리 캐나다에서 우정 참석하신 성수자(7
회) 동문과 일찍부터 자리를 함께 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김명섭 의원(5회)이 어렵
게 시간을 내어 등나무 그늘아래 설치된 바둑 특별대
국장에서 유영후 회장과 반상의 수읽기에 여념이 없
는 모습이 이채를 띠었으며, 대한약사회의 이규진 부
회장(9회), 문재빈 부회장(11회), 김구 약사공론 부주
간(12회), 김종렬 부회장(14회), 박석동 홍보위원장
(15회)이, 서울시약사회의 황공룡 부회장(11회), 이
경옥 의료보험위원장(19회)을 비롯 황태선(9회, 평
택), 신상직(17회, 도봉), 김현태(20회, 수원), 김영식
(23회, 성동), 김승재(24회, 안산) 분회장이 건재한

모습들로 회원들을 격려했다. 여동문회의 강옥희 회
장(12회)과 엄계숙 부회장(13회), 이경옥 총무(19회)
가 변함없이 다소 차갑게 느껴지는 날씨에 뜨거운 차
와 간식을 제공하며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반가웠으며, 김연희 전회장(8회)이 든든하게 뒤를 지
켜주었다.

쌀쌀한 날씨를 감안하여 도시락 대신 근처 식당을
지정하여 더운 식사를 하도록 배려한 것도 우려와 달
리 큰 혼잡없이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식후에
진행된 후배 재학생들의 풍물패 공연은 작년 여동문
회의 감쪽쏘에 이어 체육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선배들의 아낌없는 찬
사를 받았다.





골프

1위



2위



3위



사전행사로 9월 30일 수원 88컨트리클럽에서 오전 7시에 티업을 시작한 골프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코스, 서코스로 나누어 한 지부당 4명씩 15개 팀이 참가, 총 60명의 동문들이 기량을 겨뤘다. 특히 그 인기를 반영하듯 정작 본 대회보다 선수 선발을 위한 자체 평가대회가 훨씬 치열했다는 후문. 2차례의 선발전을 거치기도 했다고 한다.

작년에 이어 안양지부가 2연패를 달성했으며, 수원지부가 한 계단 뛰어오른 2위로, 그리고 새롭게 성남지부가 3위로 부상하며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 <1위> 안양지부 : 정찬현(20회), 이신규(20회),
손병로(29회), 이국재(29회)
- <2위> 수원지부 : 김정관(9회), 이원영(20회),
김현태(20회), 김영후(26회)
- <3위> 성남지부 : 이규진(9회), 이영민(10회),
서정목(10회), 김 구(12회)

- <개인상> △메달리스트 : 조대현(25회)
- △준우승 : 이국재(29회)
- △4등 : 김현태(20회)
- △룡 : 이창욱(19회), 이원영(20회)
- △막내상 : 김상훈(30회)



테니스

1위



2위



3위



부속중학교 테니스장에서 개최된 테니스 시합 역시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우천 관계로 땅고르기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진행에 약간의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역시 골프 못지 않게 매니아층을 가진 약사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수준 높은 경기가 이어졌다. 작년 공동우승의 부산지부가 참가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으나, 공동우승의 다른 주역인 안산지부는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인천지부에 우승을 양보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종로지부의 전상훈(17회) 동문은 2년 연속 3위에 입상, 건재함을 과시했다.

- <1위> 인천지부 : 전명선(21회), 김민영(23회)
- <2위> 안산지부 : 김승재(24회), 최민규(26회)
- <3위> 종로지부 : 전상훈(17회), 정갑진(17회)

- △우승 : 이범도(24회)
- △3등 : 정찬현(20회)
- △5등 : 이송학(5회)
- △니어 : 이규진(9회), 서정목(10회)
- △행운상 : 조중형(18회)

축구

1위



2위



3위



아무래도 참가인원이 가장 많고, 또한 전통적으로 가장 열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의 특성상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졌다. 비온 후의 운동장을 고르느라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 평소의 기량을 과시하기에는 힘에 부친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 곳곳에서 쓰러지고 미끄러지는 본래의 솔직한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어 동문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강서지부의 한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발에 쥐가 나 걱정을 하기도 했으나, 작년의 뜨거웠던 열기를 고스란히 이어받기에 충분한 열의가 운동장 가득 피어올랐다. 이채로운 것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개최국답게 승부차기가 속출하여 끊임없이 긴장과 웃음을 동시에 자극하여 흥미를 배가시켰다.

바둑

1위



2위



3위



본부석 뒤편 등나무 벤치에 마련된 특별대국장에서 개최된 바둑대회는 작년보다 2팀이 많은 총 7팀이 참가하여 만만찮은 열의를 과시했다. 모처럼 자리를 같이한 김명섭 의원이 유영후 회장과 기념대국을 했으며, 수원지부에서 민병희(27회) 동문이 홍일점으로 참석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선전, 팀이 3위에 입상하는데 기여를 하여 최대의 눈길을 끌었다.

〈1위〉 안양지부

위혜주(15회), 정진수(17회), 김경완(28회)

〈2위〉 인천지부

김용호(21회), 김재준(25회), 김대희(17회)

〈3위〉 수원지부

강응모(18회), 이세진(21회), 민병희(27회)

〈1위〉 수원지부 : 이래흥(25회), 권세형(25회), 김영후(26회), 최충식(27회), 이승목(27회), 박영묵(27회), 이무백(27회), 이상우(27회), 이생수(28회), 이광수(29회), 최동일(32회), 한일권(34회),

〈2위〉 관악·도봉지부 : 문재빈(13회), 김종열(14회), 박석동(15회), 신상직(17회), 백광현(18회), 윤건섭(19회), 백명규(21회), 장규욱(24회), 안희영(27회), 유희동(28회), 기병서(28회), 조승길(29회), 주명권(29회), 박상훈(37회)

〈3위〉 강서·양천지부 : 박효식(19회), 유영내(20회), 오상동(20회), 최두수(25회), 조형진(28회), 이종민(29회), 김광석(29회), 강대용(29회), 정의차(30회), 김성국(31회), 이진우(31회), 문태섭(34회), 임성호(36회),

Home-Coming Day

“언제부터인가 큰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듯한 모교의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대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협조해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

— 유영후 회장 인사말 중에서

저녁 6시부터 모교 교수식당에서 개최된 Home-Coming Day는 작년보다 다소 저조한 참석률을 보여 일말의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으나 그 열기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듯 뜨겁게 이어졌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분들에 더하여 김기호(4회), 허인회(4회) 명예교수를 비롯 이도익 전학장(23회), 김창종(11회, 약사발전특위 위원장), 김홍진(22회), 이민원(25회), 염정록 교수가 참석하여 주셨으며, 국제적인 약사들의 축제인 FAPA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8회)도 자리를 빛내 주었다. 작년 동문회 미국방문시 물심양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뉴욕 거주 서황석(9회) 동문이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같이한 캐나다의 성수재(7회) 동문과 나란히 참석, 먼 길을 무릅쓰고 오랜만에 고국땅을 밟은 감회를 전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즐기는 훈훈한 정경을 연출했다.

유영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부터인가 큰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듯한 모교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이번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대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협조해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 발전기금 500만원을 쾌척하시는 손동헌 명예교수

평소 약대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박명수 총장이 역시 작년에 이어 바쁜 와중에도 직접 참석하는 애정을 보여 각별한 박수를 받았다. 특히 박총장은 미리 작성해서 의례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인사말이 아니라 즉석에서 동문들의 감정을 뭉클하게 하는 호소력있는 내용으로 재단의 어려움에 따른 재정투자의 열악함으로 위기에 처한 학교발전을 역설, 동문들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 줄 것을 강조하여 최고책임자로서의 안타까움과 학교발전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보여 동문들의 심정적인 동조를 얻기에 충분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참석한 손동헌 명예교수(1회)가 학교사랑, 후배사랑의 각별한 애정을 담아 발전기금 500만원을 쾌척하며 "비록 적은 액수지만 내게는 5억원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돈"이라는 말씀에 모두들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며, 한석원 대한약사회장, 미주의 서황석 동문, 그리고 신상직 동문이 각각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약정, 동문회 모임의 의미를 한껏 과시하며 훈훈한바람을 불어넣었다.

후배 재학생들로 구성된 Calamus 합창단이 명곡을 열창하여 후반부의 분위기를 다져가는데 불을 붙였으며, 선배 동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행운권 추첨에서 천영진 교수가 1등을 차지한 것을 비롯 모교 교수들이 거의 예외없이 당첨되어 축하의 의미를 더했으며, 이해석(5회) 동문은 부부 약사로서의 금슬을 과시하며 두 분이 나란히 당첨, 오늘 행사를 위해 새벽부터 애쓴 약대학생회장에게 선물을 양도하여 뜨거운 후배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정경을 보여주었다.

비건 뒤의 상쾌함이라고 할까. 약간의 아쉬움을 내년엔 다시 만날 기대에 실으며 교가제창을 끝으로 행사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져 갔다.

동문 여러분, 파이팅!



▲ 재학생들로 구성된 Calamus 합창단의 공연



▲ 모교 천영진 교수에게 행운권 1등의 영광이!



풍물소리따라 후배들 찾아



우혜승
(44회, 대웅제약 마케팅부)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 푸르른 하늘, 오후의 파사로운 햇별이 가을의 문턱을 넘었음을 알려줍니다.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기들.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이 궁금합니다. 지난 장마에 혹여 많은 피해 입으신 동문들은 없는지, 장마가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와 더 정신이 없었을 한가위는 잘 지내셨는지……학교 다닐 때는 평생 그럴 것처럼 밤늦게까지 불어 다니던 친구들이 졸업하니 다들 각자의 삶에 충실하느라 매달 모임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고, 다른 동기들도 간혹 소식을 듣는 것에 그치니 안타깝습니다. 인원이 많아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난 김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모임을 한번 가져야겠네요 ^^*

며칠 전 문화패 소리나눔의 공연이 있어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새로운 정문을 들어서서 파이퍼홀을 향해가는데 멀리서 들리는 풍물소리에 가슴이 두근졌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서 후배들의 공연을 보는데 정말 잘하더군요.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열심히 뛰는 후배들을 보니까 참 예쁘다는 생각과 예전에 제 모습이 아른거려 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는 여기저기서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졌습니다. 저희 또래의 고민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았어요. 진로문제, 직장문제, 연애얘기에 밤늦은 줄 몰랐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회사생활한지 아직 일년이 못된 저는 제 나름대로, 벌써 직

장 3년차가 된 동기들은 또 그 나름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지 고민하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자니 3년 전 생각이 나더군요

일년이나 대학원에 진학할 준비를 해왔으면서도 막상 취직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보니 괜히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선배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구요. 여러 조언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선배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한참 다들 진로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시기인데, 그럴 때 선배들과의 모임자리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대로 선배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고 또 저보다 경험이 많은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임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게 좀 아쉽고 저를 포함한 많은 선배님들이 약사 새내기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작스레 투고를 하게 되어서 당혹스러웠지만 일단 펜을 드니 많은 동문들에게도 나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에 왠지 모를 뿌듯함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동문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즐겁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동문들이 소식들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월의 발자취 14회 동기회

청운의 꿈을 품고 검은 돌에 입성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산도 세 번이나 바뀌고 검은머리도 어느덧 백발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이순의 나이에 모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음은 청춘이니 주책이 아닌가 생각되어 혼자 쓸쓸히 미소를 짓곤 합니다.

고만고만한 도토리 들이 세월이 지나 감에 따라 각자의 길을 걷다보니 다양한 인생의 파노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불귀의 객이 되어 먼 나라로 떠나버린 동문들... 물론 대다수의 동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마지막 남은 만추의 결실을 익혀 뛰고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동기들은 약학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약국개업을 하고 있으나 이색적인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길을 걷고 있는 동문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의학 분업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자주 만나기도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고있어 마음속으로만 하나하나의 동문들 모습을 그려보곤 합니다.

인생출발의 전당인 예식장(공항 터미널)을 운영하는 김명웅 동기, 한약의 대가인 정진모 동기(모교 의식약 대학원 겸임교수), 생명의 비밀을 비타민 및 영양소로 풀고 있는 박성호 동기, 약대 동문회 총무로서 바쁜 중에도 열성인 윤대봉 동문, 정치 중년생인 봉화의 업체항 동문(전 봉화군수), 지역 약사회 및 대약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김종렬 동문, 대를 이어 일양약품이라는 대 제약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정도언 동기, 자제 두명을 법조인으로 탄생시킨 안태화 동문 등 모두모두 만나보고 싶습니다. 필자도 약사로서 약의 길을 걷기보다 화장품의 세계로 입문하여 현재는 모교의 의약식품대학원에서 화장품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동기회의 회장직을 맡은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동문들의 경조사에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한점을 사과드리고 다시한번 30주년 행사같은 모든 동기들의 모임을 다시 한번 개최하여 머루주 잔을 기울이며 그리운 얼굴들을 보고 싶습니다.

동문 모두의 건투를 기원하며...



이 규 식
(14회, 동기회장)



停(定)年을 맞이하여



허인회
(4회, 모교 명예교수)

약학대학 약물학 교실 제자와 동문들의 주선으로 저의 정년퇴임식이 Rusa 태풍이 몰아치는 8월 말일 치러졌고, 이제 저는 다른 생활계로 들어갑니다.

저는 1956년 흑석동에 발 들여놓은 이후 46년을 중앙대학교 약대에서만 지나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느라고 최선을 다 했지만 충분치 못한 교육, 변변치 못한 연구, 보잘 것 없는 사회 봉사 등등 어느 때는 괴로움도 많았었고, 때로는 즐거움도 만끽하면서 긴 여로를 걸어왔습니다. 그 동안 걸어오면서 나의 불찰로 주위 분들께서 괴로움이나 마음이 상하셨던 일이 있었다면 이 지면을 통해 용서를 빕니다. 마음을 비우고 산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덜컹거리고 불안한 먼기차여행의 종착역에 도착한 기분이며, 우선 대과 없이 도착한 안도의 한 숨을 쉬면서 걱정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제 도착역 주변의 관광명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여기서 그곳이 삶을 즐기려 합니다.

혹자는 교수란 직업이 철밥통이라 부러워하지만, 교수란 직업이 늘 긴장과 칼같이 쫓기는 시간, 업적의 요구와, 연속되는 자기와의 싸움이기에 자유롭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강의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고문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어느 때는 경쟁심이

나를 불안케 하기도 했고, 조그만 일로 얼굴도 붉히며 참았어도 될 일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볼 여가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온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도 직업은 교수직을 원 할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저의 학교 주변에서 생활을 같이하며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선배교수님, 즐거움도 괴로움도 함께 하며 충고와 위로를 해준 동료 교직원, 그리고 언제나 만나면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대학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래도록 만남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백의 증왕륜이란 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桃花潭水深千尺(도화담수심천척) 이거늘, 不及汪倫送我情(불급왕륜송아정).”이란 시구가 있습니다. 즉 도화담 맑은 물이 천 척이나 깊다한들 날 배웅 나온 왕륜의 정에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나타내었습니다. 물 천 척 보다 깊은 여러분과의 정을 영원토



특 간직하
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갈려
고 다짐합니다.

또 두보의 한 시구에 이런 구절이 있
습니다. “蓋棺事則已(개관사즉이), 此
志常豁(차지상기활)”. 즉 관 뚜껑을 덮
으면 그로 그만이건만, 자기 품은 뜻
이 늘 달성되기를 바라고 아등바등 살
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제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경고문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후학을 위한 약학에 관한
공부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
다만 이제부터 저에게 남은 공부는

첫째 버리는 공부로 “탐욕, 교만, 망
상, 허영, 편견, 증오심” 등을 버리는
것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하고

둘째 잇는 공부로 “원한, 분노, 모욕,
불쾌” 등을 빨리 잊어 정신적 평안을
찾는 것이며,

셋째 주는 공부로 “지혜, 사랑, 힘,
덕, 훈훈한 향기, 웃음” 등을 남에게 베풀고, 줌으로서 나의 얼굴이 밝아지고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헤르만 헛세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했듯이 사랑
을 바탕으로 해서 살립니다.

그리고 동문회의 한 사람으로서, 명
예교수로서 학교나 동문회에 누를 끼
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흑석골 증왕 약대를 거쳐 나온 한
가족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여건 속
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완수하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찬사를 드립니다. 늘 “樂在人和”
의 글귀를 생각하면서 동문들은 굳게
결속하여 나라, 학교, 약학, 사업을 발
전시키는 역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늘 서풍이 비
치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
사합니다.

이백의 증왕륜이란
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桃花潭水深千尺
이거늘,
不及汪倫送我情”
이란 시구가
있습니다.

즉, 도화담 맑은
물이 천 척이나
깊다한들 날 배웅
나온 왕륜의 정에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나타내었습니다.
물 천 척 보다 깊은
여러분과의 정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갈려고
다짐합니다.





최 광 훈
(22회, 동기회장)

Azole계 항진균제의 복약지도

진균감염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작용이 많고 때로는 효과가 불확실한 amphotericin B가 표준약제로 사용될 만큼 전신적 항진균제 개발에는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

다행히 최근들어 triazole 의 임상적 경험이 늘면서 임상적응증이 점차 넓혀지고 있어 앞으로 전신적 항균요법은 triazole 약물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Azole의 화학구조별 분류>

1. imidazole : miconazole, ketoconazole
2. triazole : itraconazole, fluconazole

* Azole 의 작용기전

진균의 cytochrome p-450 효소중 하나와 결합하여 진균세포막의 구성에 필수적인 ergosterol의 생합성을 방해하여 진균세포막의 합성을 억제시켜 진균을 죽이게 된다. 한편 이 계열 약물은 인체내에 존재하는 cytochrome p-450 효소도 약하게 억제하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 Ketoconazole

오심, 구토 등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흔하며(3~10%), 발진, 소양감 일시적인 간 효소치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드물지만 1500명중 1명에게서 전격성 간염을 초래하여 치명적인 경우도 있다. Testosterone 합성의 감소로 성욕감퇴, 발기부전, 여성형 유방, 월경불순 등 다양한 내분비계 부작용을 나타낸다.

경구적으로만 투여가 가능하며 산성조건하(pH 3 이하)에서 수용성을 나타내므로 위산이 존재해야 체내 흡수가 효과적이므로 식전 복용을 권유함이 좋고, H₂차단제와 제산제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Ketoconazole 투여로 혈중농도가 높아지는 약물 : phenytoin, warfarin, digoxin, cyclosporin, prednisolone

*Azole의 혈중농도를 낮추므로 ketoconazole의 용량을 증가해야 하는 약물 : rifampicin, carbamazepine

<Fluconazole>

중성 pH에서 수용성이므로 경구뿐만 아니라 주사제로 투여가 가능하며, 경구 투여시 90% 이상이 신속하게 체내에 흡수된다. Ketoconazole, itraconazole 과 달리 위내 음식물과 산성 pH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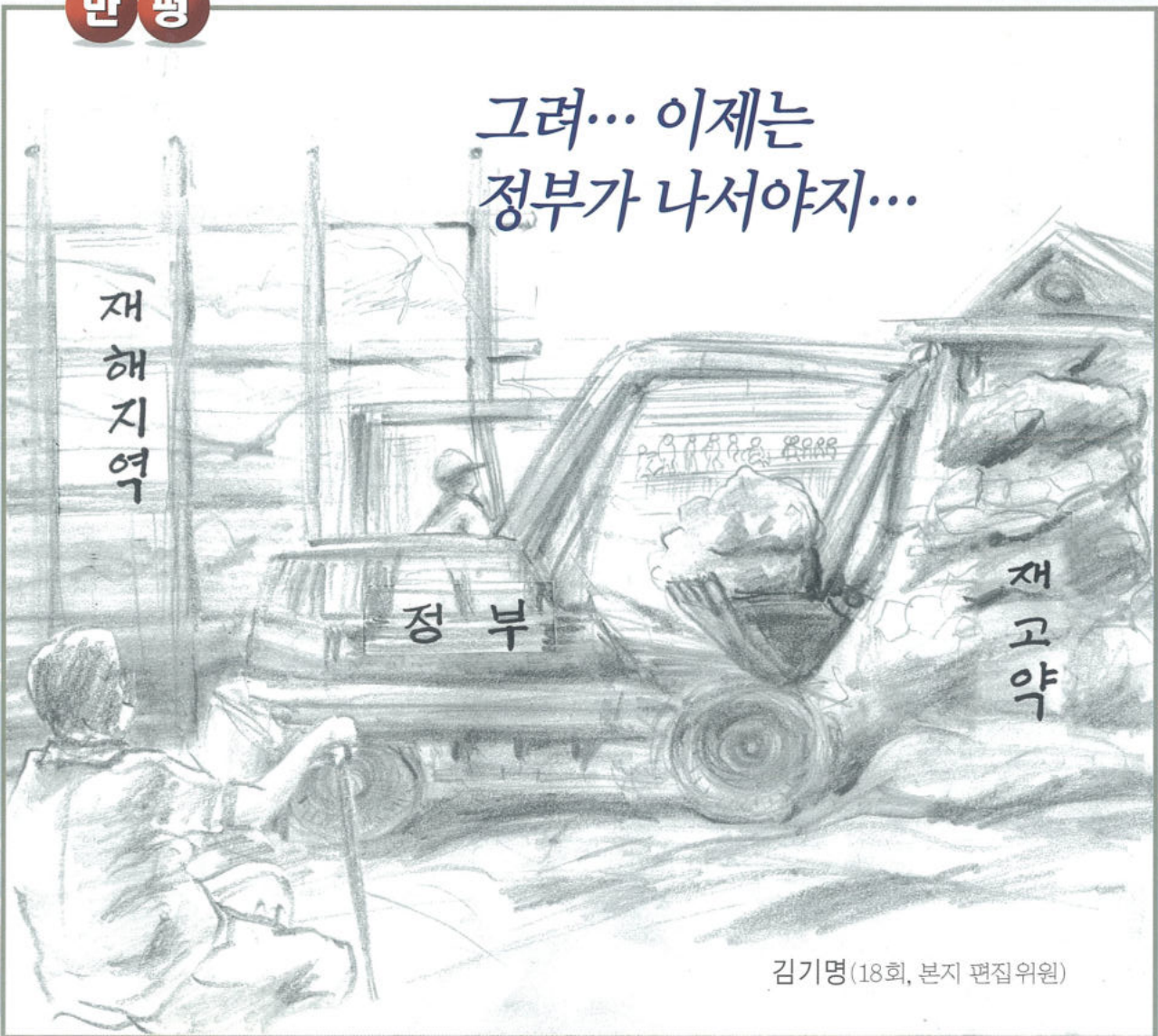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위장관계의 부작용이 가장 빈번하며(5%), 알레르기성 발진 두통, 일시적인 간효소치의 증가(3%) 등이 나타난다. 동시투여시

혈중농도가 높아지는 약물과 fluconazole의 투여량을 증가 시켜야 되는 약물은 ketoconazole고 거의 동일하다. 특히, rifampicin은 fluconazole의 혈중농도를 약25% 정도 낮춘다. AIDS 환자의 구강 및 식도 칸디다증 치료에 있어 fluconazole 이 가장효과 적인 azole 계 약제이다.

<Itraconazole>

흡수는 위내에 음식물이 있으면 증가되며 제산제의 의하여 감소되나, H₂ 차단제에 의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빈번하며(5~15%), 소양감, 두통, 현기증, 발기부전, 발진, 성욕감퇴가 있을 수 있다. Ripampicin, carbamazepine 등은 itraconazole의 약제농도를 낮추며, 반면에 itraconazole 은 cyclosporin, digoxin, phenytoin의 약제농도를 높인다.

만 평



김기명(18회, 본지 편집위원)

북쪽에도 GMP 제도가 있으시요

- 평양방문 일지



조 의 환
(8회, 삼진제약 부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는 지난 4월 북한에 있는 평양의과대학에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 44개 품목(5억5천7백9십6만원 상당)을 무상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확대 및 앞으로의 교역확대를 위한 전초전으로 전개된 것이며, 무상지원한 의약품의 적정 분배 확인과 경협추진 등을 위하여 이번의 북한 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2002년 7월 15일 월요일 맑음

북한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일행은 한춘식 총경리의 안내를 받아 공단에 위치한 북경한미약품 유한공장을 견학하였다. 모든 것이 GMP 규격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공장이 있는 중국 북경의 하늘 아래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애국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이 느껴졌다.

2002년 7월 16일 화요일 흐림

평양행 비행기표와 입국 비자를 받아들고 나니 이제는 정말 평양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경공항에서 평양행 비행수속을 하는데 벌써 안내하는 공항 안내원의 말소리가 특이했다.

1시간 30분 정도의 비행 후 이전에 순안공항이라고 불리던 평양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시설이며 통관절차며 모든 것이 너무도 허술하고 열악하여 말이 안 나올 정도였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나니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광명성총회사 오광식 부사장과 서기실 원철민 지도원, 김학철 지도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평양에 첫발을 들이면서 많은 감회



가 오간다. 전쟁과 분단의 설움을 서로 안고 있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오고 가는 길이 멀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표현 못할 마음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었을 것이다.

평양의 날씨는 굉장히 더웠는데, 이를 전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한다. 고려호텔로 가기 위해 봉고형 차에 올랐다. 안내원은 우리가 평양시내로 가는 도중 김일성 주석의 동상을 경유하게 되는데,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두 이곳에 헌화하고 묵념을 드리는 것이 관례라고 하면서 우리일행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만수대를 경유한 후에야 고려호텔에 도착했다.

저녁에는 민경련이 우리 대표단을 초대하였는데, 그 동안의 경제협력 사업과 우리의 의약품 지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내일 있을 김춘근 서기장과의 회담 내용을 검토했다.

평양시내의 모습은 신호등이 없고 한산한 차량과 과도전차, 무궤도전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지하철도 일정구간 운행한다는데 직접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다. 도로에 비하면 너무도 차가 적었고 평양시내를 활보하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고 가끔 학생들의 집단행렬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남루한 옷차림에서 그들의 생활상이 드러나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들에게서 측은함을 느끼며 우리 남한의 모든 것과는 너무나 큰 거리감이 느껴졌다. 만약 이대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너무 큰 거리감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오겠구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2002년 7월 17일 수요일 흐림

오전에는 만경대를 둘러보았다. 만경대는 김일성 생가를 성역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꼭 다녀가게 만든 곳으로, 그때 당시의 생활상과 농기구 및 가구 등이 아주 정결하게 진열되어 있다. 주위 환경도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로 많은 정성을 들인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12시쯤 점심식사를 위해서 육류관으로 향했다. 이곳은 대동강변에 있는 평양 최대의 음식점으로 1960년대에 개업하여 수차에 걸친 증축과 개축으로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에 10,00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 방문한 모든 사람들은 평양냉면과 쟁반국수 등을 주로 주문하고, 요즈음은 닭고기를 쟁반 밑에 놓고 육수와 국수를 곁들여 먹는 메뉴가 인기를 끈다고 한다.

식사 후 민경련을 방문하여 의약품지원사업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회의를 시작했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과거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기구로 중국 지역에서 대남경협문제를 전담해 오다가 1998년 5월 민경련으로 개칭하였으며, 광명성총회(피복, 경공업, 농수산물 등 취급), 삼천리총회사(전자, 중공업, 화학, 공예 등 취급), 개선무역총회사(한약재, 일반상품, 주방설비 등 교역), 금강산국제관광총회(금강산 관광사업 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경대표부도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민경련 서기장 김춘근, 개선무역총회사 김태길 과장 등과 같이 이번 사업과 북한의 의약품 제조회사, 의대부속병원 등의 견학과 앞으로의 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토의를 하였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지금 같은 지원보다는 제약공장의 신설을 원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더 자세한 사항은 북경대표부를 통해서 자주 연락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오후 8시30분부터 우리 일행은 오월경기장(May Day Stadium)에서 지난 4월부터 공연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리랑 축전을 관람하였다. 12만명이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있다는 설명과 같이 대단히 크고 웅장하였다. 카드섹션의 준비인원이 20,000명이 고 축전에 동원된 연인원이 100,000명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 아리랑의 선율과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하며 울려 퍼지는 고 김정구씨의 노래를 듣고 있자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2002년 7월 18일 목요일 흐린 후 맑음

9시30분경 평양의과대학에 도착하여 류환수 병원장과 한호 약제부장의 안내를 받아 접견실로 들어가 이번에 지원받은 의약품들이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약품으로 감사하게 받아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치하의 말을 들었다. 그래도 의사사이니까 의약품의 존귀함을 실감하는 터라 우리를 대하는 태도며 말 한마디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류 원장은 흉부외과 전공이라면서 수술할 때의 2차, 3차 항생제의 필요성과 병원에서의 다빈도 신의약품의 부족을 강조하며 향후 필수약품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 병원은 1948년 건립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구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의과대학 소속인 동시에 독립적으로 학생을 위한 병상교육시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려의사(한의사)는 많지 않고 신의사를 많이 양성한다고 한

이번 평양방문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느끼면서 우리 민족간에 이질감과 경제의 차이점, 이념을 떠난 우리의 순수한 대북사업에 다시 한번 생각을 다듬는 계기가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여정을 접었다.

다. 의과대학은 6년제로 의대 졸업후 우수학생만을 선발하여 3년 6개월 정도 이곳에서 교육을 시킨 후 우수학생 중 희망에 따라 박사반을 운영한다고 한다.

약제부장의 말로는 호르몬제, 부신피질 계통의 약물들, 폐렴, 기관지염의 약물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기회가 되면 이들 약물의 목록을 미리 보내주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우리 협회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이야기하고 준비해 간 시계, 볼펜 및 약간의 의약품 샘플 및 소개책자 등을 건네주고 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는 병원을 떠났다.

오전 11시 우리는 안내원들에게 전날부터 특별히 부탁했던 조선미술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었다. 특히 고구려왕의 무덤인 안악제3호 무덤의 회벽과 돌벽에 그린 생활풍속화를 비롯하여 강서무덤의 돌벽 위에 그린 사신도, 고려시대의 불화, 18세기 사실주의 화가들이 그린 흥미있는 그림들과 공예품들, 현대 미술작품과 조선화, 유화, 판화, 자수, 정교한 금속공예, 칠공예, 옥돌공예, 말총공예, 나무공예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정현웅 선생의 작품이

었다. 6.25 사변 당시 반 강제로 월북하신 선생은 4세기중엽 안악 제3호 무덤의 벽화를 5년여 동안 무덤에 기거하시며(1957년도) 고구려 왕릉의 남자 주인공, 행렬도 및 여주인공 등의 벽화를 사실 그대로 그렸는데, 물방울 자국, 횃물이 흐른 자국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특히 그분의 친아들이 우리 일행 중에 있었으니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하듯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오후 3시쯤 정성 녹십자공장을 방문하여 그곳 책임자의 안내를 받으며 유로키나제의 생산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1kg의 반제품원료를 생산하여 남한의 녹십자로 반입해서 동결건조후 완제품을 생산한다고 한다. 앞으로 남한의 녹십자에서 완제품 생산시설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나 언제쯤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북쪽에도 GMP 제도가 있다는 말을 그곳 대표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옆에는 골조만 올라간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을 우리에게 공장 신설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공할 수도 있다고 오광식 부사장은 말했다.

오후 5시경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된 적이 있고, 평양의 자랑거리라 불리는 교예단(써커스) 공연을 관람했으며, 저녁은 그 유명한 평양 단고기(개고기)집에서 별미를 맛보았다.

2002년 7월 19일 금요일 맑음

오전에 묘향산의 수려한 풍광과 함께 칠색송어탕을 맛보고 5시경 평양으로 돌아온 후 광명성총회에서 3차 회합을 가졌다. 남한과 북한의 제약업에 대한 차이점, GMP제도, 앞으로의 지원형태 및 지원방법, 방북단의 규모와 지원하는 의약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토의하였는데, 북측에서는 현재의 지원보다는 기계설비를 지원하여 원료구입에서 제품생산까지를 요청하였으며, 그 후에 그 시설을 이용하여 북에서 필요한 의약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하였다. 차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평양 시내에는 백화점이 몇 개 있다지만 방문할 수가 없었으며 인민문화궁전, 평양 실내체육관, 단군릉, 동명왕릉, 모란봉, 을밀

대, 인민대학습당 등은 가서 볼 수가 없었으나, 개선문과 주체사상탑은 안내를 받아 둘러볼 수 있었다.

종교생활은 외국인들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공인된 교회와 성당에서의 의식을 허용하는데,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곡교회의 두 교회가 있고, 천주교는 1988년 세워진 장충성당이 있는데, 1000명 정도의 신자가 있으며, 불교의 경우 1만 여명의 신자와 60개 정도의 사찰이 있고, 천도교의 경우 1만5천명 정도의 신자가 있다고 한다.

2002년 7월 20일 토요일 맑음

아침 8시에 고려호텔을 출발하여 평양공항에서 간단한 출국심사를 끝냈다. 오후식 부사장과 그 동안 우리를 안내했던 김학철, 원철민 선생의 환송을 받으며 그래도 VIP 대우를 받으며 고려항공

민항기에 올랐다.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한 것이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국제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9시 정각 평양공항을 이륙하여 1시간 20분정도 비행 후 북경공항을 경유, 다시 서울행 아시아나 항공으로 자리를 옮겨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우리나라 비행기에 탑승하여 보니 새삼 우리의 국력과 대한국민의 위대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우러나와 가슴 벅참을 느끼면서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번 평양방문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느끼면서 우리 민족간에 이질감과 경제의 차이점, 이념을 떠난 우리의 순수한 대북사업에 다시 한번 생각을 다듬는 계기가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여정을 접었다.

뉴욕에서 온 편지

유 영우 회장님께 드림니다
7/13/02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14회 동문입니다
Brooklyn에 있는 Coney Island 방문에 더 약자로
원한의 10원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유 회장님 뉴욕
방문 하겠음때 좋겠지요. 그때 식당에서
카보치아도 레아볼 카미 디나서도 뉴욕 동문
들의 주의를 끌었는지 잊지 않는 만큼
약시회도 받음때 감사 기억하겠습니다.
여유이 아닌 새로운 리원 방문은 같은 기억
받았습니다. 그 유머를 우리의 우편보통
일일이 영리한 리원동호까지 받게 해주시는 베풀어
성취에 감사 드려서 저도 진정한 동문들의
일원사주 하신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오래동안 잊고 살았던 사원후에 주영의 관례까지
은 귀족에서 안났습니다 - 가슴에 받았던
관복 벗 버섯지는, 언뜻의 행복감은, 심상간의
라이터들은 -

회장님의 세심한 베풀어 길은 감사는
드라외 동문회에 또 회장님께로 받힌
가진 합니다

유 영우 회장님 김정숙 동문님

* 약조하리만 100불 리기 동봉 합니다.

PS. 구좌번호는 2층에 올라서 money order
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영급서 이상여
있을까요? 리원집 리화번호
718-236-7029 입니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 81학번 성년의 밤



이준
(29회, 동기회장)

“야~ 나야~ 이준!!!!”

꼭 1년전이었다! 1년 선배인 희규형한테 전화가 왔다.

“준아 니가 동기회장이지, 이번 주 일요일 날 교수식당에서 우리 동기회 하나 꼭 나와라!” “예!”, 대답은 했지만 좀 이상했다! 1년 선배들 동기회를 하는데 왜 나를 부르지? 여하튼,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했다.

이게 웬일인가? 교수식당이 없어졌다. 수위에게 물어본 결과 교직원식당은 옛날에 우리가 강의를 들었던 농대 건물 뒤에 있었다. 이런~ 정문에서 간신히 올라왔는데~~. 약대 건물은 그대로 였다. 20년 전 그대로~~ 아마 50년전 그대로가 아닐까 생각했다.

80학번 동기회에서 내가 온 이유를 알았다. 아주 오래 전부터 중대 약대의 전통이 입학 20주년이 되면 동기들과 교수님들 모셔서 사은회를 하는 것이고, 1년 아래 후배동기회장에게 “청룡상”을 물려 주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선배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동기들을 만나면 더 좋겠구나.’ 청룡상을 받으면서 우리 81학번은 훨씬 더 잘 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

1월 : 동기들에게 연락할 계획을 세웠다.

‘5월쯤에 회원 명부가 나오니, 그때쯤~’

6월 : 회원 명부가 나왔다. ‘너무 일찍 연락하면 잊어 먹으니 2개월 전에 하자’

8월 : 지방별로 지부장을 만들어 연락을 했다. 지역의 동기들에게 연락하라고~

9월 :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추석은 지나고 보내야겠지

10월 : 큰일났다. 담당 지역의 지부장들이 한명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다!

교수님들에게도 인사가 늦어서 학장님한테 야단맞고,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 다른 동기회장들처럼 하지 않고, 조직(?)을 이용하는 여유 부린 것이 탈이다. 15년 만에 전화를 할 생각을 하니 까마득하였다. ‘애는 누구지 이름도 생소한데, 누구지? 날 모르면 어떡하나~’ 거기다가 회원 명부의 전화는 30%는 틀린 것 같다. 가끔 통화했던 친구들에게는 전화를 걸면 늦게 연락했다고 욕만 바가지로 먹었다.

드디어 처음 거는 동기의 전화대!

“따르릉” “여보세요~~”

“***약사님좀 부탁드립니다!”

“전데요~”

“야~ 나야~ 이준!!!!”

“이준?! , 아하 오랜만이다!”

동기들아~ 너무 늦게 연락해서 진짜

미안하다! 하지만, 통화를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과 같은 심정, 그나마 전화가 안되어 연락조차 못한 친구들에게는 면목이 없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다.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해서 잘 모이도록 하자



대한약리학회 중의학술상에 손의동 교수(22회, 모교교수)



모교 손의동 교수가 대한약리학회(회장 서유현)가 주는 중의학술상을 수상했다. 약리학회는 지난 15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에서 개최한 추계총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역류성 식도염의 연동기전에 대한 신호전달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손의동 교수에게 학술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교수는 Autonomic & Autacoid Pharmacology의 국제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외협력부 입학 30주년 동문재상봉행사

에서 각 대학별로 모임을 가졌다. 모임중 약학대학은 약학과, 환경위생과 72학번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차기년도 약학대학 입학생에게 등록금(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장학금 기부자 명단(약대 20회) : 김현태, 김영섭, 김홍진, 권오규, 문주기, 박기배, 방금숙, 유승희, 이철남, 이신규, 이극선, 이영희, 유화송, 정찬현, 정영수, 조진한, 최철순, 홍철수, 홍설화(이상19명)

결혼

- 한석원(8회) 이사 9월 7일 자녀결혼
- 허정범(11회) 이사 10월 12일 자녀결혼
- 신성목(7회) 이사 10월 13일 자녀결혼
- 조정자(10회) 11월 10일 자녀결혼

부음

- 문재빈(13회) 이사 8월 18일 장인상
- 신광근(14회) 이사 9월 18일 모친상
- 서국진(13회) 총무 9월 26일 모친상
- 이종수(6회) 9월 19일 부인 사망

행사

- 8월 31일 허인회(4회) 교수님 정년퇴임식
- 9월 10일 관악구약사회 자선다과회 (회장:박석동, 15회)
- 9월 11일 작은청룡회 골프모임



- 9월 27일 성북지부 모임(회장: 김영덕, 7회)



- 10월 17일 중량구약사회 자선다과회 (회장: 박상용, 22회)
- 10월 19일 도봉·강북약사회 자선다과회 (회장: 신상직, 17회)



알림

제2회 중대약대 ROTC 총회 및 송년회

- 일시 :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6시
- 장소 : 현풍 할매집곰탕(지하철 2호선 교대역)
- 문의 : 손의동(820-5614), 박종화(569-5662)

<정정> 임정미 동문 33회로 정정합니다.



중양인의 밤 마침내 부활

10월 28일 6시 30분 63빌딩 컨벤션 센터서

2002년 중양인의 밤 행사가 10월 28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중양인의 밤은 동창회 설립 50주년과 개교 84주년을 기념하고 중양인은 영원한 하나라는 20만 중양인 하나되기 운동의 기치아래 펼쳐진 행사다.

제1부 기념식에서는 성대석 본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서청원 동창회장의 환영사, 박명수 총장의 기념사, 이희수 이사장의 축사 순으로 인사말이 있었다.

제2부 디너쇼는 인기정상에 있는 장나라(연영 재학생), 강성범(연영 · 50) 등이 출연했다. 가수 현철과

김수희씨 등도 특별 출연했다. 성악가로써 양혜정(음악 · 31), 신동호(음악 · 33)교수가 주옥같은 음악을 선사했다. 출연 연예동문으로는 악극 '유랑극단', '장한몽', '울고넘는 고모령' 등으로 호평을 받았던 연영과 윤문식 동문과 김성녀 동문이 출연하여 악극의 한마당을 선보였고, 김을동 동문 등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다.

아울러 동창회는 이날 모교발전을 위한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운동도 펼쳤다.

UI 새단장

모교, 첨단·미래·역동성 UI로 새단장
영문글씨 파격... 동창회도 통일성위해 바꿀 것



모교(총장: 박명수, 행정11)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걸맞고 미래와 역동성의 모교를 나타내기 위한 새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기존의 UI 대신 새로운 UI(그림)을 선정했다.

푸른 글씨는 모교 앞을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푸르름과 모교의 힘차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생동감있게 나타내고, 세계 수준의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모교의 의지를 담고 있다.

붉은 사각형은 진리 탐구, 미래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중양의 진리가 세계로, 세계의 진리가 중양으로 통하는 창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앞으로 뻗어가는 모교의 활기찬 기상과 탐구정신을 표방하고 있으며, 기본 컬러인 푸른색과의 색상 대비로 강한 시각적 강조와 첨단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로고타입의 중양대학교는 모교의 고유한 서체로서 모교만의 표기를 위하여 특별히 디자인 되었다. 간결하고 안정된 서체는 모교의 전문성과 믿음을 상징하고 있으며, 회색 컬러를 사용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CAU 워드마크와 통일성과 조합성을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표현하였다.

발전기금 조성 내역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현황(2002년 10월 26일 현재) : 총 4억 8천 8백 만원

직역 · 지부별

▶ 교 수 : 총 10,200 만원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중(5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이민원(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손의동(500), 천영진(500),
손동현(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 동문회장단: 총 12,300 만원

유영후(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박숙자(500),
조의환(5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새(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김현태(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 학 생 : 총 5,350 만원

▶ 동문회지부: 총 6,550 만원

· 고양시지부 - 1,050 만원

박기배(20회,300), 함삼균(24회,50), 김춘규(25회,100),
박건규(31회,50), 이재희(25회) · 김은진(29회)부부(500),
방극상(36회,50)

· 안산시지부 - 5,000 만원

이범도(24회,300), 안산 79학번 동기회(2,000),
김승재(24회) · 김희식(28회)부부(500),
이창욱(19회,300), 최민규(26회,300), 박복자(30회,300)

· 천안시지부 - 500 만원

최옥출(11회,100)

기수별(단위 : 만원)

1회 : 손동현(500)
2회 : 고두흔(박명자 부부 : 600)
4회 : 김기호(500), 허인회(500)
5회 : 이해석(강태일 부부 : 1,000), 박명자(고두흔 부부 : 600)
6회 : 임철부(1,000)
7회 : 박숙자(500), 유영후(1,000), 유윤자(300), 이기안(500), 정재일(500)
8회 : 김연희(500), 문옥재(300), 조의환(500), 한석원(500)
9회 : 이규진(500), 김영부(500)
10회 : 박호일(500), 유정새(500)
11회 : 김창중(500), 김청길(300), 정덕호(500), 최옥출(100), 황공용(500), 황문상(500)
12회 : 강옥희(500), 김 구(500), 염윤기(300), 이호섭(300)
13회 : 김종성(400), 서국진(500), 윤창현(300)
14회 : 윤대봉(500)
15회 : 김승태(400), 박석동(500)
17회 : 신상직(500)
18회 : 박계환(300), 정명진(500)
19회 : 권영훈(300), 김경오(500), 이경옥(300), 이창욱(300)
20회 : 김영섭(300), 김현태(500), 정영수(300), 정찬현(400), 박기배(300)

21회 : 김수배(300)
22회 : 김홍진(500), 손의동(500)
23회 : 김영식(300), 양재업(100), 이도익(500), 이승하(300)
24회 : 김승재(김희식 부부 : 500), 윤규형(500), 이광섭(300), 이범도(300), 함삼균(50), 최영욱(1,000)
25회 : 이내홍(300), 이민원(500), 김춘규(100), 이재희(김은진 부부 : 500)
26회 : 심상수(500), 최민규(300), 황완균(500)
27회 : 안산 79학번 동기회(2,000), 방만성(조순연 부부 : 500)
28회 : 김유곤(500), 김영희(300), 양덕숙(300), 임채욱(500), 김희식(김승재 부부 : 500)
29회 : 김은진(이재희 부부 : 500), 김영재(300), 강철선(300), 이종민(300), 유인석(300), 정진호(300), 이 준(300), 서경원(300), 강대용(300)
30회 : 조순연(방만성 부부 : 500), 박복자(300)
31회 : 김하형(500), 박건규(50)
32회 : 채영주(100)
36회 : 방극상(50)
39회 : 91학번 동기회(이용준 외, 300)
40회 : 한국약품(이병두) (300)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7월 20일 ~ 10월 20일)

회장단 회비(연24만원)

- ▷ 박호일(10회) ▷ 유정새(10회) ▷ 정덕호(11회)
- ▷ 황공용(11회) ▷ 황문상(11회) ▷ 강옥희(12회)
- ▷ 이호섭(12회) ▷ 김종성(13회) ▷ 서국진(13회)
- ▷ 이규식(14회)

이사회비(연12만원)

- ▷2회 : 이문규 ▷3회 : 최종묵 ▷4회 : 신영식
- ▷5회 : 김영배 ▷6회 : 박정배, 임성기, 유상열, 김명기
- ▷7회 : 전승규, 장영수, 강승안, 최용선, 서명규, 한철희, 김영덕
- ▷8회 : 김성숙, 허근희, 장영자, 이백천 ▷9회 : 조정기
- ▷10회 : 이양원, 김광일, 이영민, 11회 : 박상희, 허정범
- ▷12회 : 최병호 ▷13회 : 황근성, 안병식, 이상길, 박동규,
- ▷14회 : 박기진 ▷15회 : 조찬휘, 원장희 ▷16회 : 이은술
- ▷17회 : 양계순, 양희익, 전상훈, 18회 : 김상각, 조중형
- ▷20회 : 이극선 ▷22회 : 송수영 ▷23회 : 방용남
- ▷28회 : 김희식

일반회비현황(연2만원)

- 1회 : 공희택, 박종욱, 김영구, 최완범, 김인호, 허필준, 안희영, 김성윤
- 2회 : 이정희, 박필일, 최관용, 김길수, 홍순각, 육완갑, 이춘자
- 3회 : 이황배, 이정주, 조동원, 문무일, 서정목, 김정제, 곽석배, 박기하, 강기인, 이계주, 기창은, 이요식, 구용서, 선병진, 정래수
- 4회 : 조남흥, 고현영, 임석빈, 채규성, 양인택, 김덕배, 임호식, 강원석, 김태영
- 5회 : 오운교, 변동선, 박홍주, 임형철, 김경희, 최종원, 강희복, 남궁봉, 박진숙
- 6회 : 임은순, 이종호, 이만형, 홍성호, 신현수, 권종악, 이선호, 조훈, 김영재, 김태식, 김영기, 김태춘, 정진석, 신현곤, 조정순, 이원길, 박배원, 최성천
- 7회 : 박용규, 이명원, 조근행, 차승현, 안성복, 문승사, 윤태정, 권기동, 이홍수, 김불한, 이상현, 이영은, 노정익, 전광자, 박용준, 손종화, 조익중, 이학길, 박대규, 김영일, 백영익, 박승면, 유효희, 김병익, 박전현, 김병순, 곽상빈, 안창일, 송정애, 김정웅, 백남주
- 8회 : 박영우, 임영숙, 김일래, 박용문, 최영자, 홍신표, 김형이, 윤광중, 김청일, 이대길, 김기중, 권승균, 신현우, 이풍진,

- 최병준, 박찬수, 나재오, 이성규, 손영복, 정달수, 문제영, 이태하, 이운행
- 9회 : 김동수, 정보영, 임성빈, 이경주, 박종명, 김학진, 김형규, 김철, 노신희, 김수홍, 최백현, 이만구, 손승언, 김영빈, 이효식
- 10회 : 홍성민, 윤효문, 이장열
- 11회 : 이범진, 신명승, 윤대장, 박월준, 김철홍, 송병기, 최옥출, 최민재, 김기승, 박승보, 이석태
- 12회 : 이종욱, 윤종철, 박영찬, 김두학, 김승배, 이재원, 장광웅, 이순우, 황순오, 김용한, 황종하, 안철, 윤석봉, 주성균, 이원주, 신관호, 이성우, 우홍길, 엄흥식, 김갑환, 조정행, 염윤기, 송두금, 장광웅, 문혜성, 강윤탁, 최복자
- 13회 : 민영대, 지혜란, 서성범, 임채훈, 손찬규, 한상진, 김계식, 김병현, 윤해선, 최철순, 이재진
- 14회 : 현혜경, 정도연, 김갑동, 이용성, 임재익, 김영남, 이춘재, 김동원, 이희영
- 15회 : 이양섭, 박원봉, 김화선, 최정숙, 최재길, 남석우, 정동욱, 강용순, 이덕노, 유태형
- 16회 : 노남진, 최광식, 박창호, 이재용, 정동래, 이정순, 이규주, 최장순, 김관호, 신규언, 차동일, 박창호, 윤영위, 한인희,
- 17회 : 김상집, 이영자, 이동우, 김태범, 좌윤순, 김강현, 김민수, 박재식, 유승화
- 18회 : 이영환, 여운숙, 김침길, 권영철, 유덕희, 정태은
- 19회 : 이정재, 김종달, 유재용, 고재무, 백광현, 이경구, 장석봉, 장재훈, 조안제, 김상좌, 이석명, 최원섭
- 20회 : 조효순, 차재근, 민태형, 유희순, 박광우, 황양호, 박영순, 이기원, 정금순, 최용철, 정명숙, 홍철수, 김길주, 김영식, 정동천, 임경원, 김영남, 남덕자, 이종훈, 구장림, 송창수, 이광욱, 송창수
- 21회 : 정재일, 양주석, 최원국, 장수필, 박해옥, 박후신, 임정한, 우건상, 김용주, 박제천, 이두순, 최순중, 김병무, 홍종림
- 22회 : 박성준, 강명희, 정진호, 김태일, 한만영, 심재호, 윤명숙, 한상훈, 고석순, 유대식, 구기용
- 23회 : 박찬중, 안봉국, 은성기, 김영출, 임창영, 양재업, 나용태, 한용문, 공인호, 이원길, 김순현, 박상진, 정원국
- 24회 : 송창근, 배성식, 원경선, 김정무, 김기준, 이규삼, 이승주, 정중근, 임철빈, 양태수, 문숙희, 정상수, 이형수
- 25회 : 한동주, 한덕화, 성낙순, 이명금, 조순현, 이영제, 김완기, 이승정, 최동주, 김두수, 김용빈, 위성건, 김창현, 정효정, 정병인, 고성권, 강만선
- 26회 : 하재일, 장명열, 이근주, 김술, 안명덕, 오승주, 김병수, 유영환, 김형배, 김안식, 진희익, 이창훈, 박주돈, 최옥숙, 황완균, 윤광중, 김학철, 이상우, 김정수, 박정래, 권송상

장학금 수여식

▶ 일 시 : 2002년 9월 10일
▶ 장 소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세미나실



- 27회 : 황규진, 안희영, 오순용, 오홍설, 이상필, 김정호, 장영희, 송재욱, 최기선, 김웅섭, 양건모, 오영돈, 유기조, 최충식, 곽순자, 이창오
- 28회 : 김경완, 정경명, 임춘식, 이용해, 이혜영, 이병수, 이숙희, 이상수, 조승찬, 김성진, 전금용, 김유곤, 고재호, 변순희
- 29회 : 윤문수, 강인범, 사철기, 강대용, 조성훈, 현상배, 김응관, 강철선, 장우성, 심미선, 김미숙, 박웅삼, 한규인, 강춘원
- 30회 : 이경숙, 박병미, 원주현, 김해옥, 김성배, 이인자, 김현학, 김광식, 마경선, 장부자, 윤미숙, 윤영숙, 전기남, 박인주, 이기영, 김혜수, 이소영, 정문경
- 31회 : 송소연, 김성국, 김찬수, 구상미, 이정희, 이혜영, 유지영, 황선미, 김양희, 강미숙, 김하형
- 32회 : 신은숙, 정윤준, 권경미, 김정중, 진창연, 이효숙, 이경준, 송양심, 정세진, 송옥희
- 33회 : 김경희, 이보형, 정광희, 박진범, 김문희, 박종필
- 34회 : 이봉근, 이윤정, 강현경, 강선희, 안창준, 강홍구, 성선경, 윤덕수
- 35회 : 강장희, 최정원, 이경서, 이재훈, 김 진, 박민녕, 구수연, 양승일, 김미예, 강지선
- 36회 : 정윤돈, 고숙란, 이태경, 우경아, 김미향, 오태영, 유동명, 민희정, 홍성원
- 37회 : 박상훈, 정평수, 박재형, 전상인, 곽명옥, 황명옥, 김정희, 이문주, 유재현, 전주리
- 38회 : 박재성, 황성환, 윤상배, 박은자, 하해경, 홍인표, 양성철
- 39회 : 류미라, 전병선, 조권현, 민필기, 김학순, 유정수
- 40회 : 홍기연, 조경미, 최용석, 김정임, 장수영, 장미라
- 41회 : 이미경, 김은하, 박지원, 권숙희, 김정민, 김현경, 최현호, 박효석
- 42회 : 박상근, 박효순, 강영수, 이병춘, 김성중, 장성주, 신승희, 송미옥, 이예리, 남은정, 양원실, 송일용, 최장순, 이광희, 정희석, 민지홍, 박소영
- 43회 : 김현정, 김선남, 김일화, 박소희, 김효진, 김성희, 강성원, 위은영
- 44회 : 민지숙, 이정훈, 이지현, 허행수
- 45회 : 이수영, 박수진

▶입회비 추가분 : 강희철, 민정식, 김은희, 신승희

미주동문 일반회비

유길수(4회) 200불, 김옥희(12회) 5만원, 유길옥(17회) 6만원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중앙약동문회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1	채 혜 나	3.82
	700,000	1	성 수 연	3.80
	700,000	2	박 아 연	4.12
	700,000	2	류 해 숙	4.05
	700,000	2	고 경 희	4.14
	700,000	3	조 은 샘	3.90
	700,000	3	이 한 승	3.90
	700,000	4	양 병 찬	3.76
	700,000	4	이 종 화	3.77
	700,000	4	손 형 운	3.78
영등포동문회 (1,500,000)	500,000	2	조 정 임	4.02
	500,000	4	최 정 원	3.72
	500,000	3	조 승 곤	3.77
부 산 동 문 회 (1,000,000)	500,000	2	김 성 건	4.08
	500,000	3	엄 선 영	3.82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1	박 인 영	3.80
	500,000	4	김 민 영	3.76
한미약품(주) (3,000,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합 계 ; 13,000,000				



편집자기

드디어 동문회보가 지령10호를 맞이하게 됐다. 유영후 회장 출범에 맞추어 中央藥大同門會報가 창간 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햇수로는 3년, 지령도 제법 쌓여 10호가 된것이다. 전국뿐 아니라 미주지역에서까지 배달된 소식에 대한 Response가 참여한 편집위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동문회보가 앞으로도 알찬 소식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徐

걱정이 앞서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법, 날 잡아 놓으니 비 온다는 일기예보에 일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새벽부터 천둥번개 소리에 잠을 설치고 나선 발걸음이 그리 무겁지만은 않았던 자신 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이심전심으로 예년보다 일찍 체육대회 장소에 나타난 임원들, 보직교수님들, 특히 행정실의 물심양면 지원에 재학생들의 헌신적인 봉사 이미 오늘의 성공을 반쯤은 담보하고 있었다.

明

형님! 우리 너무 짧았던 만남이었습니다. 30여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 넘은 그 순간들이 꿈만 같습니다. 가끔 소식은 언뜻 들었지만 막상 사모님과 뛰어난 미모의 따님을 함께 보니 전혀 생경치 않습니다. 행복 하시지요. 물론...,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겠지요? 정감어린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우정 시간을 빼앗지 못한 용기를 못내 자책합니다. 모국 방문에 큰 의미와 성과가 있으셨는지요? 또다시 이 아쉬움을 미래로 넘깁니다. 형님은 모든 역경을 헤치고 우뚝선 나에겐 우상이십니다. 아련한 추억속의 존재인이었고 찰튼헤스톤이었으며 안소 니퀸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庸

드디어 법이 개정되었다. 다소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도 자식이 군대에 가지 않으면(본인은 물론이고)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자식들에 대한 특별체력단련이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사서 군대에 같이 보내 어떻게든 복무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차라리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했으며, 부록으로 성적이 상위 1%에 들지 않거나 남다른 특별한 재능이 없는 자식을 마구잡이로 해외유학을 보내면 국회의원 출마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은 자기들 답답해서라도 국내 교육환경을 억지로라도 개선하지 않겠느냐는 여론 앞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고시 패스후 판검사로 임용되기 전에 반드시 말단 동서기로 3년을 봉사하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을 배워야 한다는 법은 주지하 다시피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洙

선전 광고중에 먹는거 선전 할 때 맛 없다고 광고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 다가오는데 저마다 화려한 청사진(?)을 내 놓고 있는데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하는 후보자들은 하나도 없는 거 같다. 결국 선택의 몫은 각자에게 달려 있지만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는 현명한 판단에 의한 후보자가 이 사회를 이끌 지도자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맛 없는 것은 맛없다고 주장 할 수 있는... 한해의 말미에 생각해 본다.

〈편집위원장〉
황 공 용(11회)

〈편집위원〉
서 국 진(13회)
김 기 명(18회)
박 희 용(23회)
김 정 수(26회)

동문여러분의
욕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세상에는 명품이 있다!

광동 우황청심원

제대로 된 약재만을 엄선해 만든 '광동' 인지 확인하십시오.

세월을 두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명품.

까다롭게 엄선한 약재로 만들기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쉽게 흉내낼 수 없기에 더욱 돋보이는 가치!

제대로 만든 약재, '광동' 우황청심원은 세상 하나뿐입니다.

광동우황청심원



※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작용'을 잘 읽은 다음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동제약



중앙대학교교육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